

임마누엘 레비나스의 ‘존재론적 모험’에 대한 연구

성신형 (송실대학교)

- I. 들어가는 말 - 크루디의 얼굴
- II. 근원적인 질문 - 모험의 시작
- III. 얼굴의 놀라움(무한(Infinity)) - 모험의 발전
- IV. 새로운 경험(대속(substitution)) - 모험의 절정
- V. 대답하는 능력(책임(respond-ability)) - 모험의 대단원
- VI. 나가는 말 - 끝나지 않은 모험

• ABSTRACT •

A Study of the Ontological Adventure of Emmanuel Levinas

Seong, ShinHyung

This research delves into the 'ontological adventure' which is initiated by Emmanuel Levinas as his ethical foundation. This paper searches Levinas' works from his early to the latest in order to track this adventure. Levinas started this adventure as he wondered the limitation of the Western Philosophy which is founded on ontology, and he focused on the differences between of existence and existents. He concentrated on the phenomenological meaning of the Other's face and human relation. As humanity meets the face, he or she can listen to the petition of the face. This leads them to experience the Infinity. Through this experience, humanity realizes the significance of subjectivity which is based on the identity of selfhood rather than that of sameness. At this moment, the subject experience a completely new dimension of being, called, 'substitution.' Finally, the subject formulates the 'ethical subjectivity' who is responsible of the petition of the other. Thus, this research paper studies the ethical foundation of Levinas which is based on the conception of responsibility as this pursuits the ontological adventure.

Key words: Emmanuel Levinas, Ontological Adventure, Responsibility, Proximity, Substitution

I. 들어가는 말 - 크루디의 얼굴

지난 9월 2일 시리아의 한 어린이의 얼굴은 세계를 흔들어 놓았다. 인간이 당한 그 엄청난 고통 앞에 사람들은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으며, 그 어린 아이의 얼굴은 세계의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마침내 시리아의 난민문제에 세계가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 한 아이의 죽음으로 끝난 고통의 경험은 매우 슬프고 안타깝지만, 그 고통 속에서 세계의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레비나스의 생각처럼 고통 자체는 쓸모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란 서로 관계적인 존재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러한 인간의 엄청난 경험을 통해 얻게 된 교훈을 생각해보면서, 본 논문에서는 레비나스를 다시 생각해보려고 한다. 특히 그가 천착했던 인간 관계성을 기본으로 하는 윤리의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탐구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윤리적인 과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레비나스의 철학은 자신의 홀로코스트의 경험에서 출발한다. 이 경험은 레비나스 철학을 이끌어간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로서, 레비나스를 보편적인 진리에 대한 탐구보다는 인간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이끌었다.¹⁾ 레비나스는 타인의 의미에 대한 사유를 그의 철학의 제일 과제로 삼고 평생을 이 문제에 몰두하였다. 그의 이 경험은 존재론 중심의 서구 철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 고민하면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서 몰두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그의 시도는 오늘날 포스트모던 철학체계에 그리고 윤리학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본 연구

1) Emmanuel Levinas, *The Levinas Reader*, ed. Seán Hand (Oxford: Blackwell Publishing, 1989), 2.

는 레비나스의 존재와 타자에 대한 이와 같은 사유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이 목표이다.

레비나스의 철학적인 사고의 눈을 뜨게 한 철학자는 후설이었다. 후설은 19세기 당시 철학의 가장 큰 주제였던 ‘의심하고 있는 자아’의 의미에 대해서 반문하면서 철학의 시선을 삶 속에서의 경험으로 돌린 철학자이다. 그의 철학의 슬로건은 ‘순수한 코기토(*cogito*)을 벗어나서 사물자체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슬로건을 바탕으로 그는 본질들의 독특한 특징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 보다는 각 본질들이 드러내고 있는 현상들에 주목하면서 자아가 세계를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탐구하면서 자아와 세계의 관계 그리고 자아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발전시켜 갔다. 후설은 자아가 현상을 파악해 가는 길에서 공감(*empathy*)과 인식(*consciousness*)의 과정을 통해 초월적인 자아로 발전해간다고 역설하고 있다.²⁾

레비나스에게 후설의 현상학적인 사고 못지않게 중요한 철학적 사고는 하이데거의 존재의 의미이다. 하이데거는 후설의 현상학을 그의 존재론적인 사고로 끌어들었다. 하이데거는 세계 속에서 경험되는 것과 존재의 종합을 시도하였다. 그가 만들어낸 단어인 존재(다자인, *Dasein*)³⁾는 바로 이와 같은 고민의 산물이다. 하이데거는 후설의 철학이 현재성과 역사성을 결여했다고 비판하면서 후설의 관계론은 다른 사물이나 타인에 대한 자아의 단순한 투영이라고 주장하였다.⁴⁾ 특히 하이데거는 후설의 공감(*empathy*)의 개념을 거부하면서 존재론을 발전시켜 갔다. 그는 다자인

2) Colin Davis, "Phenomenology," in *Levinas - An Introduction*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6), 10-16.

3) 독일어 Da는 '거기(there)' 즉 세계를 의미하고 Sein은 '존재(being)'을 의미한다. 하이데거가 자신의 철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존재(*Dasein*)라는 단어는 세계 속에 있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다.

4) 레비나스, "Phenomenology," 14-17.

(Dasein)에서 밋자인(Mitsein)⁵⁾ 개념을 발전시키게 되는데, 이것은 세계 안에 있는 존재가 세계와 관계하는 방법으로 공존의 길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존재(Dasein)는 세계 안에 거주하면서 세계와 함께-존재(Mitsein)하는 것이다.⁶⁾

레비나스는 이 두 철학자의 사상을 깊게 연구한 후에, 이들의 사상을 극복하고자 한다. 특히 그는 관계성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타인의 의미에 대해서 그의 철학적 논리를 전개한다. 그는 일단 세계와 타인에 대한 공감이란 단순한 자아의 투영일 뿐이라는 하이데거의 후설비판을 받아들인다. 한편 그는 하이데거의 생각에도 분명한 반대를 표명한다. 왜냐하면 하이데거의 생각은 자아를 극대화하면서 타인을 객관화시키게 되는데, 이것이 서구의 전체주의가 시작되는 한 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존재가 타자를 만나는 것은 하나의 신비로운 사건이라고 레비나스는 주장한다.⁷⁾ 레비나스는 이와 같은 주체와 타자의 만남을 현상학적으로 풀어내면서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탐구해간다. 마침내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서구 철학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레비나스는 '존재론적 모험(the ontological adventure)'이라고 부른다.⁸⁾

레비나스의 존재론적 모험의 과정은 동일성(sameness)의 정체성(identity)을 극복하고 자아중심(selfhood)의 정체성(identity)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주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주체가 타인을 만나게 되는 과정의 처음 기초 단계는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5) 독일어 Mit은 '함께(with)'를 뜻한다.

6) "Phenomenology," 25-30.

7) Ibid., 30-33.

8) 임마누엘 레비나스,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 (서울: 문예출판사, 1996), 강영안 『타인의 얼굴 - 레비나스의 철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5). 그리고 Emmanuel Levinas, "Substitution," in *Basic Philosophical Writings*, 86 쪽을 보라.

주체는 내 앞에 있는 타자를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과정 속에서 주체는 타자를 대상화하고 차별화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종종 차별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타인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지배적 자아'는 진정한 의미의 주체라고 볼 수 없다. 레비나스는 주체는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에 비로소 그 주체성이 확립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진정한 주체, 즉 '도덕적인 자아'로 그리소 더 나아가서 '윤리적인 주체'로 성장하게 된다.⁹⁾ 이것이 바로 레비나스의 존

9) 김은혜, “포스트모던 시대에 도덕적 자아에 대한 기독교 책임윤리적 성찰 - 레비나스의 타자의 윤리학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44집, 2012), 195-196., 그리고 강영안, “책임으로서의 윤리 - 레비나스의 윤리적 주체 개념,” 『철학』81집, 2004.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윤리, 도덕, 주체, 그리고 자아라는 용어들이다. 일반적으로 도덕과 윤리는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레비나스도 그의 저작에서 도덕과 윤리를 구분해서 쓰기도 하고 같은 개념으로 쓰기도 했다. 일반적인 의미로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삶의 양식을 표현할 때의 용어로 도덕을 그리고 조금 더 학술적인 개념으로 윤리를 사용하였다. 한편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레비나스는 ‘제일 철학으로서의 윤리’를 주장하는데, 그의 책 『전체성과 무한』(*Totality and Infinity*)을 보면 윤리(ethics)와 도덕성(Morality)(『전체성과 무한』(*Totality and Infinity*), 304쪽)이라는 단어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레비나스에게 있어서 정체성(identity)과 주체(subjectivity)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자아(self)가 자신을 발견해가게 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정체성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는 동일성(sameness)의 정체성(identity)이고 다른 하나는 주체성(selfhood)의 정체성이다. 레비나스는 동일성의 철학(서구 존재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타자성(alterity)에 대한 발견을 통해서 윤리적인 책임을 가지는 주체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발견이 그의 책 『전체성과 무한』에서 『존재의 저편 - 본질을 넘어』(*Otherwise than Being or Beyond Essence*)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자아라는 용어와 윤리적인 주체라는 용어는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조금 더 깊은 의미에서 보면, 레비나스 철학이 발전하면서 그의 저작의 순서에 따르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음을 밝혀둔다. 이분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도덕적인 자아 개념에서 윤리적인 주체 개념으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김연숙은 “레비나스의 ‘윤리적 주체’에 관한 연구” (『철학연구』 53집, 2001)에서 레비나스의 철학에서 주체의 개념을 『전체성과 무한』을 바탕으로 자아가 주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향유적 주체로 설명하고 있고, 『존재의 저편 - 본질을 넘어』를 바탕으로 윤리적 주체로 설명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더 깊은 논의를 위해서는 서구 근대철학에서 시작하는 도덕론적인 주체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칸트에서 출발하는 이런 논의는 앞에 나온 김은혜의 논문에 잘 나와 있다. 레비나스는 서구 철학을 이어가는 의미에서 칸트의 논의를

재론적 모험의 과정이다.

본 연구는 레비나스가 타인을 만나게 되는 과정인 이 '존재론적 모험'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한다. 이 일을 위해서 필자는 레비나스의 전체 저작들을 전반적으로 그 저술 순서대로 살피면서 이 모험의 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그의 초기 저작에서 레비나스가 존재와 존재자를 인식하면서 서구 철학의 한계에 대해서 고민했던 점, 중기로 넘어오면서 타인의 얼굴의 현상학적인 특징을 고찰하면서 관계성에 대해서 살핀 점, 끝으로 후기 저작으로 넘어오면서 존재자가 자신의 모험을 마무리 지어가면서 주체로서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피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이다. 이 논문을 통해서 레비나스의 중심 개념인 타인의 얼굴에 대한 그의 관심이 어떤 순서로 발전하게 되었는지를 살피면서, 그의 윤리의 핵심 개념인 책임에 대한 사유과정을 밝힘으로 주체가 도덕적인 자아, 즉 윤리적인 주체로 성장하게 되는 과정을 밝힐 것이다. 이와 같은 탐구를 통해서 주체의 타자와의 관계성에 대한 도덕적인 자각이 어떻게 윤리적인 책임을 형성해 나가게 되는지를 밝히게 될 것이다.

II. 근원적인 질문 - 모험의 시작

2차 대전 이후 레비나스가 물었던 가장 심각한 질문은 존재론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었다: “과연 존재론은 근원적인 것인가?”, “인간 지식의 체계들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존재론이라는 점은 진실로 명확한 것인가?”¹⁰⁾ 자신의 홀로코스트의 경험은 이와 같이 심각한 철학적인 질문을

계승하면서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레비나스의 윤리적인 주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타율성(heteronomy)의 개념과 칸트의 자율성(autonomy)의 개념을 비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할 과제로 넘기고자 한다.

10) Emmanuel Levinas, “Is Ontology Fundamental?,” *Basic Philosophical Writings*, ed.

던지게 만들었다. 전쟁이 만들어 낸 끔찍한 상황, 즉 언젠가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빠져서 사는 것은 가장 극심한 ‘악’이다.¹¹⁾ 이것이 레비나스를 하이데거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발전시켰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게 만들었다.

레비나스가 하이데거의 존재론에서 문제를 삼은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존재가 다른 존재와 함께 존재하는 방식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진리에 관한 문제이다. 먼저 레비나스는 하이데거의 존재(Dasein)가 세계와 관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목한다. 존재는 세계를 향해서 열려 있는 상태로 주체와 객체의 관계로 세계와 함께 존재한다(Mitsein). 여기에 하이데거의 관계론에 맹점이 있다고 레비나스는 보고 있다. 하이데거는 존재가 세계에 던져진 혹은 열려있는 형식으로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존재는 세계 속에서 존재하면서 타자를 객관화시켜서 바라 볼 수밖에 없게 된다.¹²⁾ 그러나, 주체가 타자와 맺는 관계는 이러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세계와 관계하기 위해서는 ‘세계 속에 있게 됨(being in the world)’으로도 존재하지만, 한편으로는 ‘받아들여짐(being accepted by)’의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¹³⁾ ‘있게 됨’과 ‘받아들여짐’의 과정이 바로 소통의 과정이다.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과정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과정이며, 그 말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타인의 존재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레비나스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이 생각하고 있는

Adriaan Peperzak, Simon Critchley, and Robert Bernasconi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6), 2.

11) Emmanuel Levinas, “Nameless,” in *Proper Names*, trans. Michael B. Smith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119.

12) Ibid., 3-6.

13) Ibid., 6, 이탤릭으로 강조한 것은 원래 레비나스의 표현을 따른 것이다.

존재 자체가 진리라는 생각을 거부한다. 진리의 개념에 있어서 존재가 진리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개별적인 존재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고, 존재자가 존재에 흡수되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의 출발점이다. 결국 존재론은 힘의 철학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이에 레비나스는 존재론적인 진리나 보편성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존재를 비인간화시키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전체주의의 참담한 결과를 만들어내었기 때문이다.¹⁴⁾ 위에서 언급한대로 이제 레비나스에게 진리란 더 이상 존재의 지적인 이해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다. 즉, 이것은 종교와도 같은 것이다.¹⁵⁾ 이것은 하나의 성스러운 경험이다.

성스러움의 경험이 종교 경험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본다면, 레비나스의 분석은 설득력이 있다. 왜냐하면 성스러움의 경험은 인간의 지적인 이해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순간에 아주 강렬한 경험으로 인간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다.¹⁶⁾ 레비나스에게 종교란 어떤 거룩한 신을 만나거나 어떤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힘을 경험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보편성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얼굴로 다가온 타자에 대한 경험이다.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이름 모를 타자이다. 이 타자는 절대적이다. 왜냐하면 타자는 내가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나에게 다가와서 말을 건네고, 나는 거기에 대답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¹⁷⁾ 또한 '죽이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는 타인의 이 얼굴은 절대적이

14) Emmanuel Levinas, *Totality and Infinity*, trans. Alphonso Lingis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1969), 46

15) Emmanuel Levinas, "Nameless," in *Proper Names*, 7.

16) 루돌프 오토, 김희성 역, 『성스러움의 의미』 (서울: 분도출판사, 1987), 오토는 이러한 경험을 누멘적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7) Emmanuel Levinas, "Nameless," in *Proper Names*, 8., 그리고, Adriaan Peperzak,

다. 엄청난 파괴의 힘에 대항해서 얼굴은 호소하고 있다. 이 호소의 힘은 엄청나다. 그것은 존재에게 '더 이상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살인의 가능성이 불가능성으로 바뀌게 된다.¹⁸⁾ 이 순간이 존재가 무한을 경험하게 되는 성스러운 순간이다. 이것이 레비나스가 말하는 종교이다. 타자와 만나는 관계는 논리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강렬하게 경험되어지는 성스러운 순간이다.

여기에서 레비나스는 존재론에서 말하는 존재를 뛰어넘어서 존재자를 발견하게 된다.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의미의 존재에서 벗어나서 존재자로서 서 있는 '나(주체)'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존재론적인 모험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이다. 끊임없이 진리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하고, 존재의 의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존재자는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모험을 계속한다. 이제 자신 앞에 얼굴로 다가와 있는 타인 앞에 나는 서 있다.

III. 얼굴의 놀라움(무한(Infinity)) - 모험의 발전

존재가 자신의 모험을 시작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바로 관계에서 오는 성스러움이다. 그것은 타인의 얼굴이 가지고 있는 무조건적인 특징이다. 그것은 바로 무한(Infinity)이다. 이것은 종교와 같다. 여기에서 레비나스는 타인의 얼굴에서 현상학적인 특징을 읽어낸다. 그리고 레비나스는 타인의 얼굴이 지니고 있는 무한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기독교적인 용어인 '계시(revelation)'와 '신의 현현(epiphany)'을 사용한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얼굴은 아무런 실질적인 본질을 담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얼굴에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다. 레비나스에

To the Other -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Emmanuel Levinas (West Lafayette: Purdue University Press, 1993), 59.

18) 레비나스, "Is Ontology Fundamental," 9-10.

게 얼굴은 놀라움 그 자체이다. 무엇보다도 얼굴은 의미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 아니 얼굴은 아무것도 정의내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얼굴은 다른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이 아니다.¹⁹⁾ 얼굴은 그 자체로 말을 걸어온다. 얼굴은 살아 있는 대화의 상대이다. 얼굴은 모두 같은 동일자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다른 말을 한다. 이것이 얼굴의 자기표현이다. 얼굴은 지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다가와서 내게 말을 걸어오는 그 순간 솔직하게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즉 얼굴의 인식은 지적인 작업이 아니라, 의미를 만들어내는 일이다.²⁰⁾ 이제 내가 타인의 얼굴과 대면하는 그 순간 나는 타인의 존재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지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 이것으로 나와 타인의 관계는 비로소 시작된다. 얼굴은 관계를 확인하게 해준다. 여기에 얼굴의 놀라움이 있다.

나에게 의미로 다가온 타인의 얼굴은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 이러한 과정은 다른 사람의 있음에 대해서 단순하게 인식하는 과정이 아니라, 나의 힘과 소유를 내려놓고 타인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타인의 얼굴은 나를 소환한다. 나는 얼굴의 소환에 대답한다.²¹⁾ 이러한 과정에서 얼굴의 초월성을 발견한다. 얼굴은 자기를 계시하고 현현한다. 나는 타인의 얼굴 앞에 서 있다. 이 순간이 바로 내가 무한(Infinity)을 경험하는 순간이다. 이제 타인은 내 옆의 어떤 한 사람(an other)이 아니라, 그 타자(the Other)로 내 앞에 서 있다. 얼굴로 다가온 타인은 절대적인 존재로

19) Bernhard Waldenfels, "Levinas and the face of the other,"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Levinas*, ed., Simon Critchley and Robert Bernascon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66.

20) Emmanuel Levinas, *Totality and Infinity*, trans. Alphonso Lingis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1969), 66-67.

21) Michael L. Morgan, *Discovering Levina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72.

그 자신을 현현하고 있다. 이 순간이 바로 나와 타자와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이다.²²⁾

그러나 얼굴은 영광스러운 모습이나 힘을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의 모습으로 자신을 현현하지 않는다. 오히려 얼굴은 고아, 과부, 버려진 사람 들처럼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한다.²³⁾ 레비나스는 얼굴에서 힘의 논리를 발견하고 그 얼굴을 통해서 어떻게 힘의 논리가 극복되는지를 역설한다. 얼굴은 항상 죽음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은 상대방의 얼굴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내가 나의 권력과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 이런 경우는 더욱 잘 드러난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살인의 가능성을 막는 것도 역시 얼굴이다. 아무 힘도 없이 얼굴은 힘에 대항하면서 호소한다. “죽이지 말라.” 이 힘없고 아무런 말도 없는 저항, 즉 얼굴의 호소야말로 죽음의 힘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와 같이 얼굴은 초월적인 절대성을 가지고 자신을 현현한다. 이 나약한 현현이 존재를 움직인다. 때로는 고아의 얼굴로, 때로는 버려진 사람의 얼굴로, 때로는 난민들의 얼굴로 현현되는 이 과정에서 존재는 윤리적으로 변하게 된다. 얼굴의 현현은 존재를 윤리로 이끌어 낸다.²⁴⁾

더 나아가서 얼굴은 진실과 정의의 의미를 전달해준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레비나스에게 진실 혹은 진리란 존재에 대한 지적인 탐구의 결과물이 아니다. 존재자들이 끊임없는 존재의 과정에 진실이 들어있다. 얼굴의 현현은 이와 같은 과정을 잘 보여준다. 타자의 얼굴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명확한 사실은 없다. 존재는 얼굴로 자신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다. 말을 걸어오는 얼굴에 대답하는 나는 진리를 경험하게 된다.

22) 레비나스, *Totality and Infinity*, 194-196.

23) *Ibid.*, 213-215.

24) *Ibid.*, 198-200.

진리란 진실에 대해서 명상하는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 내가 관계를 형성하게 될 때에 오는 것이다.²⁵⁾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 존재는 정의의 문제가 자신 앞에 놓여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진리가 존재의 사회적인 관계성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면, 정의의 문제 역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평한 관계성이 정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레비나스가 주장하는 정의는 나와 타자가 서로 마주보는 일대일의 관계가 아니다. 나를 호출하는 타인의 얼굴은 나에게 요구한다. 나의 자유는 침해당하고 제약된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과정 속에서 나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다.²⁶⁾ 타인의 얼굴의 호소에 대답하는 나는 도덕적인 자아로 발전하게 된다. 얼굴의 호소는 나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제 정의의 문제는 내가 감당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이와 같이 타인의 얼굴은 정의와 진리의 근원이 되었다.²⁷⁾

IV. 새로운 경험(대속(substitution)) - 모험의 절정

타인의 얼굴을 통해서 무한을 발견한 주체는 존재론적인 모험을 계속해서 즐기면서 그 절정에 도달하게 된다. 이것은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경험이다. 이 경험은 존재론적인 대속(substitution)이다.²⁸⁾ 레비나

25) Ibid., 69-70.

26) Emmanuel Levinas, "Freedom and Command," in *Collected Philosophical Papers*, trans. Alphonso Lingis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1998), 19.

27) 레비나스, "Levinas and the face of the other," 69-70.

28) 이 단어(substitution)를 어떻게 번역하는가에 대해서는 보통 대속이라는 말을 쓴다. 그러나 이 단어는 여러 의미가 있다. 대리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치환이라는 단어도 한 번 고려해볼 만하다. 혹은 자리바꿈이나 대체라는 말로도 번역되어도 좋을 것 같다. 이 단어는 레비나스 후기 저작인 『존재의 저편 - 본질을 넘어』 (*Otherwise than Being or Beyond Essence*)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으로 레비나스의 윤리적인 책임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해주는 단어이다. 또한 이 용어는 기독교 윤리학과도 가장 잘

스의 철학에서 대속의 개념은 주체의 존재론적인 모험을 보여주는 매우 독특한 경험이면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개념이기도 하다. 레비나스를 비판하는 철학자들의 논쟁의 중심도 이 개념에 있다. 도대체 존재자가 자신의 모험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이 그를 혹은 그녀를 대속의 상태로 바꿔버리게 만드는가? 대속의 경험은 자칫 존재자가 자신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모험이 위협해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대속의 경험이 과연 가능하기는 한가? 너무 과장된 것은 아닌가?²⁹⁾

이러한 비판에 대한 레비나스의 대답은 분명하고 단호하다.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무한을 경험하고, 얼굴의 현현을 경험한 주체는 대속의 경험을 하게 된다. 레비나스가 말하는 대속의 경험은 타인의 호소에 대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것은 바로 타자를 대신하여 희생되고 고통을 받는 것이다. 이것은 주체가 합리적인 생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대한 호소를 듣고, 그 고통을 대리하는 상태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³⁰⁾ 고통은 그것 자체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고통은 단지 인간에게 끊임없는 아픔을 주는 악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뿐이다. 그러나 타인이 고통하고 있는 신음 소리를 듣는 순간에 구원의 가능성이 발견된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바로 타인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이 순간이 바로 나와 타인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고통은 나의 것이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는 타인과 윤리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된

연결될 수 있는 용어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영안의 글 “책임으로서의 윤리 - 레비나스의 윤리적 주체 개념”을 보라.

29) 이와 같은 비판들 중에 리피르의 비판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인간관계는 상호적인 것이지, 결코 어느 한 쪽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리피르의 레비나스 비판의 핵심이다. 리피르는 레비나스의 논리는 지나친 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좀 더 깊은 논의는 리피르의 책 *Oneself as Another*,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30) 김연숙, “레비나스의 ”윤리적 주체“에 관한 연구” 『철학연구』 (53집, 2001), 283.

다.³¹⁾

얼굴로 자신을 현현하고 있는 타자는 이제 나의 주인이다. 그러나 이 주인은 나를 힘으로 통치하고 군림하는 주인이 아니다. 이 주인은 고아와 과부와 버려진 사람의 얼굴로 찾아온다. 힘없는 주인이다.³²⁾ 레비나스는 이 주인을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25장의 천국의 비유를 언급한다. 예수께서 최후의 심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다. “너는 내가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주었고, 헐벗을 때에 입을 옷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나를 찾아봐주었다.” 이 말씀에 대한 의인의 대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 하였습니까?” 이 때 주님의 대답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나의 주인은 힘을 가진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존재자의 주인이다.³³⁾

이 경험은 아나키(an-archy)의 경험이다. 그러나 레비나스의 아나키는 무정부 상태의 혼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레비나스는 아나키의 그리스어원에 주목한다. 그리스접두어 *an*은 *pre*(이전)를 의미하고 *arche* (ἀρχή)는 기원(origin) 혹은 원리(principle)를 의미한다. 이것은 존재가 존재하기 이전의 원상태에 대한 경험이고 깨달음이다. 얼굴의 현현 앞에서 있으면서 자신의 주인을 발견한 주체는 나의 처음 원상태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³⁴⁾ 모든 기원이나 원리 이전의 어떤 때는 아나키(혼돈)으로 보인

31) Emmanuel Levinas, “Useless Suffering,” in *Entre Nous: Thinking-of-the-other*, trans. Michael B. Smith and Barbara Harshav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8), 92-94.

32) 레비나스, *Totality and Infinity*, 101.

33) Emmanuel Levinas, *Alterity & Transcendence*, trans., by Michael B. Smith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9), 24-25.

34) Emmanuel Levinas, “Substitution,” in *Basic Philosophical Writings*, 80.

다. 그러나 레비나스의 아나키(기원 이전)는 현재의 그 어떤 존재도 절대화 할 수 없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아나키(기원 이전)의 상태에서는 단지 관계가 있을 뿐이다.³⁵⁾ 이러한 아나키적인 인간관계는 그 어떤 철학적인 아프리오리나 존재중심의 자아인식을 거부한다. 이것은 관계 그 자체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레비나스는 독일 문학가 폴 칼렌의 유명한 시구인 “Ich bin du, wenn ich ich bin.”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역설하고 있다. 그 뜻은 ‘만일 내가 나라면(혹은 내가 나 자신이 될 때), 나는 당신입니다.’라는 뜻이다.³⁶⁾

이제 주체는 타인에게 인도(송환)된다. 이러한 과정은 주체가 자발적으로 타인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대일의 상호적인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지 무한으로 내 앞에 현현한 타인에 대한 증언일 뿐이다.³⁷⁾ 그러므로 아나키적 관계는 수동적이다. 레비나스는 자아가 주체로 발전하게 되는 과정, 즉 존재론적인 모험의 과정은 이와 같은 근원 이전의 수동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험하는 것이다.³⁸⁾ 이와 같은 수동적인 경험은 주체가 타자에게 사로잡힌 인질(hostage)이 되게 만든다. 인질이 되었다는 것은 무한자로 그리고 초월자로 내 앞에 다가온 타자에게 “여기에 내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말한다.³⁹⁾ 이와 같은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대속을 경험하게 된다.

대속의 경험은 자아의 본질에 대한 보편성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35) Emmanuel Levinas, *Otherwise than Being or Beyond Essence*, trans. Alphonso Lingis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1998), 9. 이 책은 2010년에 김연숙, 박한표 공역으로 『존재와 다르게 - 본질의 저편』이라는 제목으로 인간사랑에서 출간되었다.

36) 레비나스, *Otherwise than Being or Beyond Essence*, 99.

37) Emmanuel Levinas, “Truth of Disclosure and Truth of Testimony,” in *Basic Philosophical Writings*, 102-103.

38) 레비나스, “Substitution,” 85-87.

39) Emmanuel Levinas, *Is it Righteous to Be*, Ed., by Jill Robbin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216.

대답하고 있는 나를 발견함으로 나의 본질에 대해서 재발견해 가는 과정이다. 자기를 희생하고 포기하는 경험은 가장 수동적인 일이며, 이러한 대속의 과정이야말로 말로 관계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다.⁴⁰⁾ 레비나스는 근원적인 수동성에 대해서 신의 존재와 주체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존재자가 신을 경험하는 과정은 무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⁴¹⁾ 그리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주체는 인질이 되는 경험을 통해서 대속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바로 책임이다. 레비나스는 존재론적인 모험의 결말을 그의 책임에 대한 생각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

V. 대답하는 능력(책임(respond-ability)) - 모험의 대단원

레비나스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앞서 살핀 그의 대속(substitution)이나 인질(hostage)을 들면서, 그의 철학은 오히려 주체의 상실을 야기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레비나스의 철학적 모험은 주체의 상실이 아니라 주체성의 옹호이다.⁴²⁾ 주체가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이다. 타인의 얼굴의

40) "Substitution," 94-95.

41) 본 연구가 레비나스의 신에 대한 연구가 아니므로, 이 정도에서 논쟁을 마무리하고 레비나스의 신 관념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로 미루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레비나스의 신이해의 큰 부분은 이미 이 연구에서도 어느 정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타인의 얼굴의 무한성과 현현이 바로 그것이다.

42) 강영안은 그의 책 『타인의 얼굴 - 레비나스의 철학』에서 레비나스 철학의 핵심은 주체성의 옹호라고 밝히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코르의 논쟁과 그에 대한 코헨(Richard A. Cohen, "Moral Selfhood," in *Ricoeur as Another: The Ethics of Subjectivity*, eds. Richard A. Cohen and James I. Marsh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2)의 대답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다. 리코르는 그의 책에서 레비나스의 관계론은 과장된 것으로 인간관계의 기본은 상호성에서 오는 것이지 급진적인 타자성(Radical Otherness)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코헨은 레비나스가 주장한 타자성에 대해서 리코르가 오해하고 있다고 대답한다. 레비나스의 타자성은 인간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한 것으로, 코헨은 레비나스의 관계는 인간을 도덕적 인간(Moral Humanity)으로 파악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호소에 대해서 대답해야 하는 주체는 윤리적인 주체로 성장하게 된다. 대속의 경험은 주체를 윤리적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경험이다. 얼굴로 다가온 타인의 현현 앞에 나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은 인간에게 그 기원 이전부터 주어진 것이었다. 그것은 타인의 존재에 대한 나의 책임이다. 레비나스는 토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를 그의 책에서 여러 번 인용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⁴³⁾ 책임은 다른 누구와 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관계성을 깨닫고 대속을 경험한 주체의 삶의 과정이다. 이 책임을 통해서 주체는 진정한 주체, 즉 레비나스가 주장하는 윤리적인 주체로 서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존재론적 모험의 대단원이다.

레비나스의 책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책임감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책임감이라고 하면 사회적 관계성 속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행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말한다. 이러한 책임감은 개인의 삶의 조건이나 시대,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적절한 행동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레비나스의 책임은 이러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레비나스의 책임은 대답하는 능력(respond-ability)이다. 얼굴로 다가온 타인은 존재자를 소환한다. 존재자에게 명령한다. 그리고 주체는 그 소환 앞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하고 대답한다.

윤리적인 인간은 기본적으로 관계를 전제한다는 것이 레비나스의 생각이라고 코헨은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43) Emmanuel Levinas, *Is It Righteous to Be? - Interviews with Emmanuel Levinas*, ed. Jill Robbin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72, 135. *Face to Face with Levinas*, ed. Richard A. Cohen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6), 31. *Ethics and Infinity*, 98, 101. 그리고 *Otherwise than Being or Beyond Essence*, 146. 이 인용문은 레비나스의 책에 나온 것을 다시 인용한 것이다.

주체는 지극히 작은 자의 얼굴로 나에게 찾아온 이 주인의 명령에 대답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대답하는 능력이 바로 책임(responsibility)이다. 이것은 아나키적인 경험이다. 이것은 그 어떤 의무를 이행하는 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이다. 얼굴로 다가온 초월자에게 대답함으로써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마침내 이것은 존재자가 자신을 찾아가는 모험의 절정이 된다.

존재자가 윤리적인 책임의 주체가 되는 여정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타인의 얼굴은 소유하거나 어떤 유형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얼굴은 다가와서 나를 소환하고 말을 건 후에, 이내 또 사라지고 만다. 얼굴은 완전히 벗은 상태이다. 늘 벗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침입당하기도 매우 쉽다.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않는다. 이런 점에서 얼굴은 매우 역설적이다. 얼굴은 늘 사람의 곁에 근접해있다(proximity). 레비나스의 가까움이란 어떤 정지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끊임 없이 존재자에게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하는 상태이다. 다시 말해서, 가까움이란 상호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누군가가 존재하고 있음을 경험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가까움을 따라가는 과정(trace)에서 존재자는 진리와 정의의 가능성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⁴⁴⁾ 이런 점에서 가까움이란 주체의 어떤 윤리적인 결단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즉 가까움이란 어떤 윤리적인 행위가 실행되기 이전의 근원적인 것이다.⁴⁵⁾

책임을 통해서 주체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게 된다. 그것은 바로 윤리적인 언어이다. 레비나스에게 책임은 언어의 문제로 직결된다. 타인의 얼굴의 모습으로 다가온 무한자에게 대답해야만 하는 주체는 대답해야만 한다. 이것은 단순한 진술이나 표현이 아니라 소통이다. 소통을 통해서 관

44) 레비나스, *Otherwise than Being or Beyond Essence*, 82-85.

45) 김종엽, "레비나스, 그리고 가까움의 현상학 - 하이데거의 동일자와 레비나스의 타자," 『철학과 현상학 연구』 (53호, 2012), 22.

계가 만들어진다. 즉 소통이 관계의 기초이다.⁴⁶⁾ 레비나스는 말함(Saying)을 고유명사를 지칭하는 대문자 'S'로 시작하면서 말하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다. 말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관계가 바로 책임 있는 인간관계이다.⁴⁷⁾ 여기에 책임의 역설이 들어있다. 책임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다. 얼굴로 말을 걸어오는 내 이웃에게 존재자는 솔직하고 진실하고 분명하게 말을 한다(Saying).⁴⁸⁾ 여기에는 그 어떤 숨김이나 가식도 없다. 얼굴로 다가온 이웃에게 존재자도 맨 얼굴로 다가간다. 서로 소통하고 서로 느끼고 또 때로는 서로 고통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위에서 말한 대속의 경험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⁴⁹⁾

이제 주체는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 그것은 서구적인 상호성에 바탕을 둔 관계를 뛰어넘은 것이다. 그것은 존재자를 윤리적인 주체로 세워내는 관계이다. 레비나스가 주장하는 이 관계는 비대칭적(asymmetry)인 관계이다. 서구 철학이 견지해오던 인간관계의 기본은 상호대칭(mutual symmetry)인 관계이다. 그러나 레비나스는 대칭적인 관계의 한계를 전체주의를 통해서 보았다. 대칭적인 관계에서는 힘의 논리가 지배할 뿐이다.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면 인간의 관계는 비대칭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대속이 이루어진 관계 속에서 존재의 책임은 극대화된다.⁵⁰⁾ 이를 통해서 자아중심성은 극복되고 관계가 중심이 되

46) Adridaan T. Peperzak, *Beyond - The Philosophy of Emmanuel Levinas*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97), 68.

47) 레비나스, *Otherwise than Being or Beyond Essence*, 47.

48) 레비나스의 존재에 관한 현상학적인 접근 중에서 '말해진 것(the Said)'과 '말함(Saying)'의 관계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말해진 것과 말함은 긴장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존재론적인 모색을 거듭한다. 존재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장소가 말해진 것 속에 있다면 말함은 존재가 주체로서 서기위한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심상우의 '무원리성의 신과 레비나스(『기독교사회윤리』 22집 2011, 151-152쪽)'를 보라.

49) 레비나스, "Essence and Disinterestedness," in *Basic Philosophical Writings*, 121

50) 레비나스, "Substitution," 94-95.

는 단계로 성장하게 된다. 이제 존재자는 내 앞에 얼굴을 하고 다가온 나의 힘없는 주인에게 책임을 가진 윤리적인 주체가 된다.

마침내 주체의 존재론적 모험은 대단원의 막을 내릴 준비를 하게 되었다. 타인의 얼굴의 호소에 대답을 할 능력이 있는(respond-able) 주체, 윤리적인 주체로 서게 되었다. 이러한 주체는 동일성의 함정에 빠져서 자신만을 생각하고 타자를 객체화 시키는 자아가 아니다. 오히려 이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윤리적인 책임을 질 줄 아는 주체이다. 이런 점에서 존재론적 모험의 대단원의 막은 내리게 되었지만, 오히려 이것은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왜냐하면, 주체는 끊임없이 타자를 만나게 되어있고, 타자의 얼굴의 호소를 듣게 되기 때문이다.

VI. 나가는 말 - 끝나지 않은 모험

이상에서 우리는 레비나스의 존재론적 모험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레비나스의 존재론적 모험은 주체가 도덕적인 자아로 세워져가는 경험의 과정이다. 처음 타자와 만나게 되었을 때에 경험하게 되는 놀라움은 이내 종교적인 경험으로 발전하게 된다. 왜냐하면, 주체는 타인의 얼굴을 통해서 무한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얼굴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주체는 진정으로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된다. 이런 발견은 주체를 대속의 경험으로 인도한다. 그것은 타인의 호소에 대해서 대답하는 능력을 발견하는 것이고, 또한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책임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윤리의 기초이다. 레비나스에게 윤리란 어떤 이론적인 사유나 인간 행동의 동기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타인의 얼굴의 호소에 대답하는 책임이다. 주체가 윤리적인 주체로 서게 되는 것이다.

아직 이 모험은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크루디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말하고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떠나지 않았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또 다른 크루디를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이 어떤 다른 이에게 크루디가 되어서 다가가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존재론적인 모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러한 모험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레비나스에게 큰 빛을 진 것이다. 레비나스가 인용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유명한 구절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책임감은 교회가 그리고 신앙인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고통과 함께 할 수 있는 거기에서 출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책임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그리고 신앙인들이 전체주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윤리적인 주체로 설 때에 가장 극대화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험은 그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에 끝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안, 『타인의 얼굴 - 레비나스의 철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5.
- “책임으로서의 윤리 - 레비나스의 윤리적 주체 개념” 『철학』81집, 2004.
- 김종엽, “레비나스, 그리고 가까움의 현상학 - 하이데거의 동일자와 레비나스의 타자” 『철학과 현상학 연구』 53호, 2012.
- 김연숙, “레비나스의 ”윤리적 주체“에 관한 연구” 『철학연구』 53집, 2001.
- 김은혜, “포스트모던 시대에 도덕적 자아에 대한 기독교 책임 윤리적 성찰 - 레비나스의 타자의 윤리학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44집, 2012.
- 루돌프 오토, 김희성 역, 『성스러움의 의미』 서울: 분도출판사, 1987
- 심상우, “무원리성의 신과 레비나스” 『기독교사회윤리』 22집, 2011.
- 임마누엘 레비나스,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 서울: 문예출판사, 1996
- _____, 김연숙, 박한표 공역, 『존재와 다르게 - 본질의 저편』 서울: 인간사랑 2010.
- Adriaan Peperzak, *To the Other -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Emmanuel Levinas* West Lafayette: Purdue University Press, 1993.
- Colin Davis, “*Levinas - An Introduction*,”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6.
- Emmanuel Levinas, *Totality and Infinity*, trans. Alphonso Lingis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1969).
- _____, *The Levinas Reader*, ed. Seàn Hand, Oxford: Blackwell Publishing, 1989.
- _____, *Basic Philosophical Writings*, ed. Adriaan Peperzak, Simon Critchley, and Robert Bernasconi,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6.
- _____, *Proper Names*, trans. Michael B. Smith,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 _____, *Otherwise than Being or Beyond Essence*, trans. Alphonso Lingis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1998.
- _____, *Collected Philosophical Papers*, trans. Alphonso Lingis, Pittsburgh:

- Duquesne University Press, 1998.
- _____, *Entre Nous: Thinking-of-the-other*, trans. Michael B. Smith and Barbara Harshav,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8.
- _____, *Alterity & Transcendence*, trans., by Michael B. Smith,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9.
- _____, *Is It Righteous to Be - Interviews with Emmanuel Levinas*, ed., Jill Robbin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 Michael L. Morgan, *Discovering Levina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 Paul Ricoeur, *Oneself as Another*, trans., Kathleen Blamey,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 Richard A. Cohen and James I. Marsh eds., *Ricoeur as Another: The Ethics of Subjectivit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2.
- Simon Critchley and Robert Bernasconi, eds., *The Cambridge Companion to Levina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논문투고일: 2015년 10월 31일

심사개시일: 2015년 11월 11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04일

• 국 문 초 록 •

본 연구는 레비나스 윤리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개념인 '존재론적 모험'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레비나스의 저작들을 그 저술 순서대로 살피면서 이 모험의 과정을 살피고 있다. 레비나스는 그의 초기 저작에서 레비나스가 존재와 존재자를 인식하면서 서구 철학의 한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생각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가면서, 타인의 얼굴의 현상학적인 특징을 고찰하면서 인간 관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주체가 타인의 얼굴을 접하게 되면서 그 얼굴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주체는 무한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후기 저작으로 넘어오면서 레비나스는 위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아가 주체성을 확립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윤리적인 주체로 발전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주체는 대속을 경험하게 되고, 마침내 책임 있는 주체로 성장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은 레비나스의 중심 개념인 타인의 얼굴에 대한 그의 관심이 어떤 순서로 발전하게 되었는지를 살피면서, 그의 윤리의 핵심 개념인 책임에 대한 사유과정을 밝힘으로 주체가 도덕적인 자아, 즉 윤리적인 주체로 성장하게 되는 과정을 밝히고 있다.

주제어: 임마누엘 레비나스, 존재론적 모험, 책임, 가까움, 대속
